

1970-1980년대 노래운동에 대한 예비적 고찰

강영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현대시 전공
adorno69@hanmail.net

I. 머리말

II. 초창기 노래책의 특징

III. 번안곡과 창작곡의 특징

IV. 맺음말

I. 머리말

사람들은 해방의 기쁨을 표출하고 권력의 폭압에 저항하며 민주주의를 불러오는 과정에서 다 함께 노래를 불렀다. 다 함께 부르는 노래의 힘은 1945년 해방 공간에서, 1960년 4월 대학가에서, 1980년 5월 서울역과 광주의 도청 앞에서, 1987년 시청 앞 광장에서 드러난 바 있다. 해방 국면에는 〈농민가〉, 〈인민항쟁가〉, 〈해방의 노래〉를 부르며 해방의 기쁨을 나눴고, 1960년 4·19에는 〈광복절 노래〉, 〈삼일절 노래〉, 〈애국가〉, 〈6·25 노래〉를 부르며 독재타도를 외쳤다. 1980년 5월 광주에서는 〈애국가〉, 〈우리의 소원〉, 〈투사의 노래〉, 〈홀라송〉을 부르며 국가권력의 폭압에 맞섰으며 1987년에는 〈애국가〉, 〈홀라송〉¹⁾을 부르며 민주주의를 염원했다.

시기나 정세에 맞지 않는 노래 가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적으로 부르는 노래가 필요해질 때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화사적 경험 속에서 적절한 노래를 호출해”²⁾ 불렀다. 어려서부터 익숙하게 들었던 노래를 부르며 각각의 차이를 제거하며 노래를 통해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한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개인이 공공의 장소에 모여 부르던 노래는 1970년대 중후반부터 종교계와 대학가의 노래책으로 집적되기 시작하여 1980년대 중반부터는 노동, 문화, 교육 단체에서도 노래책을 발간하는 방식으로 확산된다.

이 일련의 흐름을 살피기 위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출간한 『노래는 멀리멀리: 1977-1986』 상하권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는 1977년부터 1992년까지 발간된 민중가요 책과 노래 테이프를 수집하여 결정본 텍스트 5권³⁾을 만들었다. 그 중 1차년도에 발간한 『노래는 멀리멀리: 1977-1986』 상하권에는 노래책 29종에서 추린 751곡이 수록되어 있다. 이를 대상으로 하여 1970년대 후반부터

1) 이영미, 『광장의 노래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었는가』(인물과 사상사, 2018), 232쪽; 정유하, 『그래도 우리는 노래한다』(한울, 2017), 102쪽; 박정선, 『해방가요의 이념과 형식』, 『어문학』 99(2008), 199-223쪽.

2) 이영미, 위의 책(2018), 23쪽.

3) 『노래는 멀리멀리: 1977-1986』 상하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6); 『노래는 멀리멀리: 1987-1989』(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노래는 멀리멀리: 1990-1992』 상하권(2009).

노래운동 텍스트가 만들어진 맥락을 추적함으로써, 노래운동 형성기의 특성을 살피고자 한다. 29종의 노래책 목록은 표1로 제시한다.

표1- 대상 노래책

노래책 제목	발간 년도	발간처
내일을 위한 노래	1977. 4	크리스찬 아카데미
메아리 초창기 노래책	1978. 가을	서울대 메아리
메아리 4집	1979. 4. 13	서울대 메아리
한소리 2집	1980(81)	이화여대 한소리
젊은 예수	1981. 8. 12	한국기독교장로회청년회 전국연합회
메아리 5집 증보판	1982	서울대 메아리
한소리 3집	1982. 2	이화여대 한소리
석화 2집	1983. 1	고려대 석화회
메아리 6집	1983	서울대 메아리
농민가락 차차차	1984. 1	한국기독교농민회총연합회
민요모음 가사집 우리노래 좋을시고	1984	민요연구회
민요가사와 악보	1984	민요연구회
가지꽃	1984. 3. 24	놀이패 한두레, 한돌의 노래이야기
젊음 같은 꽃사태가	1984. 4. 9	서울대 메아리 정기공연
복소리 1권	1984. 5	기독교민속연구회
노래하는 예수	1984. 7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한소리 4집	1984. 9	이화여대 한소리
또다시 들을 빼앗겨	1984. 9	새벽, 공연팜플렛
노래열 3집	1984. 9	고려대 노래열
동트는 산하	1985	민중문화연구회(광주), 발행인 홍성담
노래 꾸러미 하나	1985	디딤돌
새물결 1집	1985	한국외국어대학교
진달래	1985	동국대학교 민주화추진위원회
함께 하는 노래	1985(86)	상명여대 총학생회
님을 위한 행진곡	1986. 1	민중문화운동협의회
올림터 2집	1986. 가을	연세대 올림터
메아리 7집	1985(86)	서울대 메아리
해방의 횃불 아래	1986	대한예수교장로회 청년회전국연합회
달리디쿰	1986. 5	백창우

노래책은 1970년대 후반부터 기독교계⁴⁾와 대학 노래 씨클⁵⁾에서 발간한다. 1970년대 중반부터 노래책이나 팜플렛 형태의 자료집을 발간했다는 기록은 있으나 실물을 확인하지 못해 목록에는 제시하지 않았다. 1970년대 중후반부터 단행본 형태의 노래책을 발간했다는 것은 기존의 통속적인 대중가요와 다른 노래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기독교 단체나 대학가 노래 씨클에서 노래를 발견, 발굴, 번안, 창작하여 단행본으로 엮었음을 뜻한다. 노래를 한 번 듣고 따라부르거나 전해 들은 노래의 악보를 채보하거나 낱장의 악보를 모아 두는 방식에서 벗어나 단행본 형태의 노래책을 만들어 보급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노래를 접할 수 있게 한 것이다.

1984년부터는 장르 및 대상별로 노래책이 분화되고 1985년부터는 각 지역과 대학으로 노래책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1984년부터 노래책이 농민, 대학생, 기독교인 등의 대상으로, 민요, 노래극, 공연극 등의 장르로 분화되는 데에는 현장성이 작용한다. 노래를 부르는 주체, 노래를 부르는 장소, 노래를 부르는 이유 및 목적이 구체화·다양화되면서 나타난 변화이다. 지식인이 자신을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내용에서 점차 현장에서 활동하는 노동자와 농민의 취향을 반영한 노래로, 어린이의 상상력과 감성을 자극하는 노래로 그 폭이 넓어지고 있다. 1970-80년대 초반 대학에서 노래운동을 경험한 이들이 각 지역, 문화, 노동단체로 진출하여 부문운동에 최적화된 노래운동을 전개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노래와 현실과의 상관성, 노래를 통한 현실 추동력과 투쟁력을 고양하는 과정에서 국악, 마당극, 탈춤, 노래극 등으로 장르가 분화되고, 어린이, 노동자, 농민, 야학생 등으로 노래운동의 대상이 특화되고, 서울의 새벽, 광주의 민중문화연구회 등 인천, 광주, 부산의 지역 문화활동으로도 확산된 것이다.

따라서 노래책이 분화 및 확장되기 이전인 1983년까지는 노래운동의 형성기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노래책에는 당시의 통속적인 대중가

4)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는 『내일을 위한 노래』(대화출판사, 1975)에 129곡을 수록하여 발간한 후 1977년에 개정판을 발간한다.(강원용, 『역사의 언덕에서 4, 미완성의 민주화』(한길사, 2003), 53-54쪽), 『내일을 위한 노래』를 발간하기 이전에 두 차례 발간한 프리트판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자 노래를 좀 더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책을 만든 것이다.(크리스찬아카데미 홈페이지 자료실 회의록, <http://www.daemuna.or.kr/>)

5) 메아리에서도 두 차례 팜플렛을 발간한 바 있다고 한다.

요와는 다른 노래, 당대 현실의 문제를 반영한 노래, 좀 더 나은 삶을 지향한 노래 등이 망라되어 있기에 이 노래가 이후 발간된 노래책에 재수록되거나 배제되고 새로운 노래가 추가되는 방식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이후 전개되는 노래운동의 특징을 살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노래운동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1983년까지 발간된 노래책과 그 수록곡의 특징을 살핌으로써, 노래운동 형성기의 특징을 개관하는 예비적 고찰을 진행할 것이다.

II. 초창기 노래책의 특징

초창기 노래책을 만든 곳은 기독교계와 대학가이다. 표1에 의하면 1977년에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내일을 위한 노래』를 발간하고, 1978년에 서울대 노래 씨클 메아리에서 『초창기 메아리 노래책』을 발간한다.

1. 크리스찬 아카데미는 “비인간화의 요인이 되는 양극화를 극복하는 길로서 중간집단을 육성 강화한다는 계획”⁶⁾으로 강원용 목사가 주도하여 만든 기독교 사회교육 기관⁷⁾이다. ‘중간매개집단육성강화교육’⁸⁾과정에

6) 강원용, 『역사의 언덕에서 3, Between and Beyond』(한길사, 2003), 379-380쪽.
 7) 1959년 한국기독교사회문화연구회를 설립한 후 1965년 5월 7일 한국기독교학술원에서 한국기독교 아카데미로 이름을 바꾸어 정식 출범한다. 대화를 통한 상호의사소통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종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청년학생, 광신도 문제 위원회 등 8개 분야의 전문 연구위원회를 두었다. 교수, 교직자, 선교사 국회위원, 국회전문위원, 언론인, 방송인, 영화인, 청년운동과 평신도운동 실무자 등 90여 명이 동원되었다고 한다. 위의 책, 138-139쪽.
 8) 중간집단에는 민중과 엘리트가 연대하여 참여함으로써, 엘리트집단의 귀족주의와 민중집단의 비합리성, 비전문성을 동시에 지양하고자 했다. 힘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힘을 주고 억압자에게는 압력을 가하는 압력집단 역할을 하면서 화해를 이끌어내고자 했다. 억압된 대중과 깊은 유대를 맺은 소수의 엘리트가 새 역사를 만든다는 취지 아래 노동, 농촌, 여성, 교회, 청년의 5개 분과로 나누어 ‘중간매개집단육성강화교육’을 실시했다. 당시 대학에서 강의를 하던 황한식, 신인영, 김세균, 이우재, 한명숙 등이 각 분과의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국사회를 구조적으로 인식할 사회, 경제, 역사 교육과 양극화된 사회를 극복할 인간화 교육을 진행했다. 3차례에 걸쳐 교육을 받은 각 분과의 지도자들은 현장에 가서 교육받은 내용을 실천하고 피드백을 받는 활동을 이어나갔다. 이정자, 「1970년대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여성인간화 교육」, 『젠더연구』 19(2014), 2-3쪽; 강원용, 『역사의 언덕에서 3, Between and Beyond』(한길사, 2003), 382쪽; 이우재, 「1979년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 『역사비평』 12(1991), 308쪽.

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노래가 필요해지자 당시 아카데미 강사로 활동하던 김문환이 『내일을 위한 노래』를 만든다. 김문환은 YMCA에서 싱어롱Y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문화부에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당시 젊은이들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부를 만한 노래를 개발했다. “강의나 설명으로 교육생들에게 지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래를 통한 정서적인 순화 과정으로 참된 역사의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세계교회협의회, 아시아교회협의회에서 사회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만든 노래집을 검토하여 흑인영가, 러시아민요 등을 한국어로 번안하고, 우리 시를 노래로 만드는 시곡동인회를 조직하여 새 노래를 만들고, 김민기의 노래, 싱어롱Y에서 부른 노래, 캠페인 송 등을 모아 노래책을 발간했다.

『젊은 예수』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청년회전국연합회에서 발간한 노래책이다. 총무로 일하던 인태선이 1981년 광주에서 열리는 7차 청년교육대회에서 교회청년들을 의식화하기 위해 보급용으로 만든 것이다. 원래는 ‘해방예수’라는 제목을 붙이려 했으나 당시 정세를 고려하여 ‘해방’이라는 급진적 용어를 ‘젊은’이라는 완화된 용어로 교체하여 노래책 제목을 붙였다고 한다. 한일국교정상화 반대 데모가 한창이던 당시 모든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지자¹⁰⁾ 문화활동에 제약을 받던 채희완, 임진택, 김영동 등이 교회에 모여 문화전수 활동을 한 결과물을 노래책으로 집적한 것이다. 미국식 평화운동, 아프리카계 흑인들의 저항 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므로 우리 노래를 만들어 부르자는 문제의식 속에서 만든 노래책으로 찬송가는 많이 넣지 않으려 했고, 크리스찬 아카데미나 메아리 노래책에 편중된 운동 성향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리운 금강산〉 〈타향살이〉 등의 노래까지 다채롭게 수록했다.

대학가에서 처음 노래책을 낸 곳은 서울대 노래 씨클 메아리이다. 메아리 회원들은 대학가요제에 참여하는 것을 저어할 정도로 제도권 음악에 비판적 거리를 두고, 그들 나름의 새로운 노래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어려서부터 다양한 음악 교육을 받고 중고교시절에 통기타를 접한 이들이 노래 씨클에 모여들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1978년에 노래책을

9) 강원용, 『역사의 언덕에서 4, 미완성의 민주화』(한길사, 2003), 56쪽.

10) 김형찬, 「1970년대 통기타 음악과 청년문화의 인프라」, 『대중음악과 노래운동, 그리고 청년문화』(한울, 2004), 160쪽.

낸 뒤 1979년에는 자체적으로 <메아리> 1집 테이프를 만들어 보급하는데, 테이프 수록곡 16곡 중 10곡이 메아리 회원의 창작곡일 정도로 창작의 기풍이 강했다. 1978년 발간한 『메아리 초창기 노래책』과 달리 <메아리 1집> 테이프에는 사회의식을 담은 노래를 많이 수록했다. 교내 씨클룸이나 강당 등의 제한된 공간에서 부르던 노래를 카세트 테이프¹¹⁾에 녹음하여 교외로 널리 보급한 것이다. 메아리의 활동은 이후 서울 지역 대학가에 영향을 끼쳐 이대 한소리, 고려대 석화회 및 노래열, 연세대 올림프로 확산된다.

이처럼 1970-80년대에는 기독교계와 대학가에 모인 사람들이 ‘지금 여기’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더 나은 삶을 위해 소리를 모았다. 기독교계 분과 모임에서 싱어롱을 하고, 대학가 노래 씨클룸에 모여 ‘지금 여기’에 필요한 노래를 모색하며 따라 불렀다. 그 과정에서 느낀 연대감은 “판단/행위” 직전의 ‘판단/행위 가능성’이자 현실 직전의 현실¹²⁾을 만들어내는 기폭제가 되었다. 다 함께 노래를 부르며 형성한 공통감각은 이후 구체적 행동과 실천을 끌어오는 촉매로도 작용했다. 이 시기 젊은이들이 노래를 함께 부르며 형성한 공통감각, 감성의 연대에 기반한 실천적 행위는 기존의 현실과는 다른 또 다른 미래를 꿈꾸고 만들어내는 발판이 되어 1980년대 중반 노래운동을 낳는 역할을 하게 된다.

2. 이들 노래책 수록곡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기독교계 노래책의 경우, 『내일을 위한 노래』(크리스찬 아카데미, 1978)에는 총 168곡이, 3년 후에 발간한 『젊은 예수』(한국기독교장로회청년회 전국연합회, 1981)에는 총 106곡이 수록되었다. 두 권에 모두 수록된 노래는 38곡[부록 1]에 불과하다. 『내일을 위한 노래』에 수록됐던 노래 중 130곡[부록 2]은 배제하고 『젊은 예수』에 새 노래 135곡[부록 3]을 새로 추가한다. 3년의 시차를 두고 기독교계에서 발간한 노래책 수록곡의 들고나는 현상이 심한 편이다. 『내일을 위한 노래』 수록곡 중 종교색이 짙은 찬송가류, 생일축하 노래 등의 일반곡은 빼고, 사회에 대한 고민을 담은

11) 자본주의의 시장원리를 넘어선 민중가요의 비합법음반의 문화운동적 성격에 대해서는 이영미가 연구한 바 있다. 이영미, 「민중가요 비합법 음반에 대하여」, 『한국음반학』 (한국고음반연구회, 2000), 263-286쪽.

12) 소영현, 「참여 과잉 시대의 비-시민 정치와 광장의 탈구축」, 『한국근대문화학회 2018년 상반기 학술대회 자료집』(2018.6.2.), 별지 3쪽.

노래를 『젊은 예수』에 대폭 추가한다. 그 결과 종교성보다는 사회적 확장성을 띤 노래들이 주를 이루게 된다.

『메아리 초창기 노래책』은 1978년 가을 공연에서 부른 19곡(부록 4)을 수록한 자료집이다.¹³⁾ 강당, 광장 등의 집회현장에 모인 이들이 다 함께 부르며 감정을 고양시키기 좋은 노래를 수록했다. 이 노래는 『메아리 4집』(1979)¹⁴⁾에서는 배제한다. 본격적인 노래책의 형태를 띤 『메아리 4집』에는 당대 현실을 고민하고 자신을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내용의 노래 101곡을 수록한다. 두 노래책은 가창자가 동일하더라도 노래를 부르는 장소, 청자의 규모에 따라 수록곡이 다르고 노래를 통해 견인하는 효과가 다름을 보인다. 『메아리 5집 증보판』(1982)은 1981년에 발행한 『메아리 5집』¹⁵⁾의 증보판으로 139곡을 수록했다. 당시 나온 노래 중 입수할 수 있는 모든 곡을 모은 결정본이라 할 수 있다. 두 책에 공통으로 수록된 63곡(부록 5)은 현실의 모순과 소외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메아리 4집』에 있던 노래 중 개인성, 감상성을 드러내거나 변안한 37곡(부록 6)은 『메아리 5집 증보판』에서 빼고 현실의 구체적 모순이나 문제를 드러낸 노래 77곡(부록 7)을 추가한다.

『메아리 5집 증보판』부터는 악보를 직접 그리고 가사를 적어 넣는 방식으로 편집의 통일성을 갖춘다.¹⁶⁾ 내용 차원에서든 변안곡, 민요, 찬송가, 막연한 그리움이나 추상적 감상을 담은 노래는 줄이고 구체적 현실을 반영하거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자는 내용의 창작곡을 추가한다. 현실 변화를 꾀할 노래의 필요성에서 비롯된 변화로 보인다. 노래의 기능과 역할이 바뀐 것이다.

지금까지 살핀 바, 1983년까지 발간한 노래책은 발간 주체별로 특징이 변별되기보다는 발간 시기별로 수록곡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기독교계와 대학가 노래 씨클 모두 후속 노래책을 발간할 때마다 수록곡을 대폭 교체하는 방식으로 필요한 노래를 보완했다. 따라서 증보곡과

13) 그 이전에도 메아리에서는 팜플렛 형태로 노래책을 발간한 듯한데, 실물은 확인하지 못했다. 『메아리 초창기 노래책』(1978)은 가을 공연곡 19곡만을 수록했지만 노래책 전체의 추이를 가늠하기 위해 연구대상에 포함한다.

14) 이전까지 공연 팜플렛 형태로 만들던 것과 달리 당시 알고 있던 모든 노래를 넣어 만든 책이다. 당시 『메아리 4집』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15) 『메아리 5집』은 실체를 확인하지 못했다.

16) 이전까지는 여러 곳에서 모은 악보를 한데 모았기에 책의 통일성이 없었다. 통일성 있게 노래책을 만든 이는 당시 메아리 회장 박윤우이다.

교체곡을 통해 당대에 필요한 노래가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과정, 가창자, 가창 집단, 가창 장소 등에 나타난 감성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다. 시기별 수록곡의 변화를 살펴보면 『내일을 위한 노래』(1977)와 『메아리 4집』(1979)은 16곡부록8, 『메아리 4집』과 『젊은 예수』(1981)는 38곡부록 9, 『젊은 예수』와 『메아리 5집 증보판』(1982)은 51곡부록 10을 공통으로 수록한다. 두 권에 김민기의 노래와 김지하의 시로 만든 노래를 많이 수록한 것은 1년의 시차를 두고 발간한 두 노래책의 지향, 당대에 부를 노래에 대한 감각이 비슷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1980년대 초반까지는 시의성이 떨어지거나 개인성이 두드러진 노래는 빼고 새로운 노래를 추가하는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1980년대 초반으로 가면서 중박곡이 늘어난다는 것은 시대에 부응하는 노래의 선별 작업을 진행하였음을 뜻한다.

기독교계와 대학가의 초창기 노래책에 공통적으로 수록한 노래는 다음과 같다. 『내일을 위한 노래』, 『메아리 초창기 노래책』, 『젊은 예수』, 『메아리 4집』, 『메아리 5집 증보판』 다섯 군데 모두 수록한 노래는 〈가라 모세〉, 〈진달래〉, 〈춤의 왕〉, 〈허재비〉 네 편이고, 메아리 공연집을 제외한 네 군데 모두 수록한 노래는 〈어찌 같거나〉, 〈오 자유〉, 〈이 세상 어딘가에〉, 〈이 세계 절반은 나〉, 〈작은 세상〉의 다섯 곡이다. 이들 노래는 대상이나 장르별로 분화되기 이전의 노래책에 대부분 수록되었다.

추수가 끝난 논두렁에 남아 떨고 있는 〈허재비〉, 모진 압제에서 백성을 해방시킬 것을 노래한 〈가라 모세〉, 4·19 명령을 기리는 이영도의 시조 〈진달래〉, 굶주리고 고통받는 삶을 외면하지 말라는 〈이 세계 절반은 나〉, 갈 길은 멀어도 형제와 이웃이 기다리기에 두려울 것 없다는 〈어찌 같거나〉, 나와 너와 아버지가 춤 속에서 삼위일체가 되는 〈춤의 왕〉, 엽매인 상태에서도 자유 넘치는 세계로 돌아가자는 〈오 자유〉, 평등과 평화 넘치는 자유의 나라가 있으니 함께 가보자는 〈이 세상 어딘가에〉. 이들 노래는 굶주림과 압제에 고통받는 이들이 구속을 떨치고 평등과 평화와 자유가 넘치는 곳으로 함께 가자는 희망이 주를 이룬다. 가진 자와 주린 자, 압제와 해방, 고통과 희망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현실을 인식하며 전자에서 후자로 가치를 전환하기 위해 춤추며 즐겁게 애쓰자는 내용이다. 고통스런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함께 할 이들이 있으므로 더 나은 삶을 만들자는 내용이다. 이분법적으로 나뉜 세계에서 상처받아 방황하면서도 이 세상 어딘가에는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는 믿음을 노래한 것이 대부분이다.

3. 1977-1986년에 발간된 29종의 노래책에 다수 수록된 노래 목록은 표2로 제시한다.

표2- 노래의 반복 횟수

반복 횟수	노래 이름	작사가	작곡가
23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변규백
21	이 세상 어딘가에	김민기	김민기
	진달래	이영도	한태근
20	기지촌	김민기	김민기
	이 세계 절반은 나		Ross Meillon
19	금관의 예수	김지하	김민기
18	사노라면	김문응	길옥윤
	식구 생각	김민기	김민기
	아침 이슬	김민기	김민기
	오월의 노래	문승현	문승현
	우리의 믿음 치솟아		Welsh Melody
	종이연	김민기	김민기
	차들이	김민기	김민기
	해방가		
17	가라 모세		흑인영가
	공장의 불빛	김민기	김민기
	군중의 함성	김의철	김의철
	민주	신경림	안혜경
	보람된 생활		Eddie Smith
	언덕에 서서	조창환	김문환
	타박네야	구전민요	서유석 민요

표2를 보면, 수록 빈도가 높은 노래는 김민기의 노래, 이상화, 이영도, 김지하의 시(시조)에 곡을 붙인 노래, 그 외 찬송가, 흑인영가, 러시아민요, 한국의 구전 민요 순이다. 1971년에 음반으로 발표한 김민기의 노래는 1970년대 노래운동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시(시조)에 곡을 붙인 노래는 한국 근현대사를 비롯한 문제적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외국

번안곡·구전가요는 사회적 약자의 고통과 분노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하려는 노래운동의 지향을 드러내기 위해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1971년에 음반으로 발표한 김민기의 노래는 방송가, 문화계, 기독교계, 대학가 등에 널리 알려진 상태였기에 시대를 반영하는 노래의 전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민기처럼 작사와 작곡을 하기 여의치 않은 이들은 기존의 시와 시조에서 가사를 가져와 곡을 붙여 노래를 만들었다. 문제적 현실을 드러내는 내용의 노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가사를 한국적 현실에 맞게 바꾼 흑인영가나 찬송가 역시 꺾박받는 이들을 구원할 예수라는 이분법적 인식에 빚대어 1970년대의 억압적인 현실을 폭로하고 있다. 피억압자를 해방하고 구원하는 내용의 노래를 번안함으로써 1970년대 후반 다 함께 부를 노래의 지향성을 드러낸 것이다.

Ⅲ. 번안곡과 창작곡의 특징

1. 노래운동 형성기에는 공동체의 삶을 지향하는 내용의 국내 창작곡이 거의 없었고 그러한 노래를 만들 창작 주체도 충분치 않았다. 때문에 번안곡을 만들고 민요를 재호출하고 시와 시조에 곡을 붙이는 방식으로 현실을 반영한 노래를 모색하였다.

첫째, 번안곡은 흑인 영가, 찬송가, 포크송, 러시아민요, 인도네시아 민요, 폴란드 민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캐나다 수녀 노래 등을 대상으로 했다. 출전국가, 노래 종류, 노래를 부른 계층, 도입 경로 등이 다양하다. 해외 번안곡은 멜로디와 리듬은 그대로 들여오되, 초기에는 가사를 직역하여 종교성을 노출하였으나 점차 억압자/피억압자, 굴종/해방의 대립 구도를 통해 현실 저항성을 드러낸다.

많이 반복된 번안곡은 대부분 배제되고 소외된 자의 곁에 함께 하는 존재이자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절대자로서의 주님을 설정한다. “해 아래 압박 있는 곳에서”(〈우리의 믿음 치솟아〉), “자유와 평화”(〈보람된 생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약한 자 힘 주시며”, “강한 자 바르게” 하는 주체가 주님이다. 주님으로 추상화된 주체는 굶주린 농민을 위해 싸우다 죽은 영웅 “스텐카라친”(〈스텐카라친〉)으로, 저항하다 죽음을 당한 농민을 형상화한 “치량히 울며 줄 지어” 나는 “기러기

한 때”(〈기러기〉)로 구체화된다. 이들 노래에서 주체는 주님에서 영웅으로, 영웅에서 희생자로,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노래하”는 이들로 확대된다. 이들은 다 함께 노래를 부르며 “자유 넘치는 새 세계로”(〈오 자유〉) 돌아갈 것을 꿈꾼다. 힘 없는 다수가 할 수 있는 최대치는 부조리한 현실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세상이 다가오기를 바라며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다.

그 단적인 사례가 〈전파하세〉의 변안 가사에 나타난다. 메아리에서는 복음의 전파를 노래의 전파로 바꾼다. ‘주님의 뜻’이 ‘다함께 부르는 노래’를 통해 구현되고 있다.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온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이 작은 노래 모두의 가슴에 울리어 우리 마음 모두에게 넘치길 원하네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살아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당신께 이 노래 드리고 싶소 우리의 노래는 의지할 구원이라도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구세주라도]
 산 위에 올라가서 이 노래 외치어 우리 모두 하나되어 전하길 원하네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파하세〉 1절과 3절)

변안 과정에서 가사를 바꾼 부분에 밑줄을 그어놓았다. 원 가사는 [] 안에 제시했다. “주님의 사랑”은 “작은 노래”와 “기쁨” 같은 인간의 감정으로, “봄과 같은 새 희망”은 “하나되어 흐르”는 “강물”의 역동성으로, “내게 임한 주의 사랑”은 “우리 모두 하나되”는 집단성으로 바꾸었다. “당신이 의지할 구세주”를 “우리가 의지할 구원”으로써의 “노래”로 바꿈으로써, 절대자에게 수동적으로 의지하던 차원에서 벗어나 다 함께 노래를 외쳐 부르는 능동적 행위를 강조한다. 복음을 전파하지는 내용이 노래운동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맥락으로 전환된다. 초창기 찬송가류의 리듬을 차용하여 노래운동의 지향을 드러낸 대표적인 변안곡이다. 이러한 식으로 찬송가를 변안함으로써 당시 이들이 지향하는 노래의 방향을 드러내고 노래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것을 구체화한다.

둘째, 반복 횟수가 많은 민요¹⁷⁾는 경남, 경북, 제주도, 전북 등 각

17) 구전 가요를 수록 빈도가 높은 순으로 정렬하면 다음과 같다. 타박네야(17회), 새야새

지역의 구전 민요, 전래동요 등 다양한데 주로 외세 및 지배층에 반항하거나 봉건적 모순에 중층으로 시달린 여성의 애환을 드러낸 내용이다. 민요 가사를 그대로 부르기도 했고 현실에 맞게 가사를 바꿔 부르기도 했다. 동학농민전쟁의 의병장으로 활동한 전봉준과 농민의 항거를 기린 〈새야 새야 파랑새야〉, 갑오경장부터 3·1운동, 6·25전쟁, 4·19혁명을 거치는 한국 근현대사의 비극을 담은 〈점아 점아 콩점아〉, 봉건 사회 여성의 삶의 애환을 노래한 〈진주난봉가〉가 많이 수록되었다.

점아 점아 콩점아 술 사줄게 나온다 술 사줄게 나온다

갑오전쟁 때 칼 맞아 가신 갑오전쟁 때 칼 맞아 가신 우리 할배야 우리 할배야
 3·1운동 때 총 맞아 가신 3·1운동 때 총 맞아 가신 우리 할배야 우리 할배야
 6·25 때 총 맞아 가신 6·25 때 총 맞아 가신 우리 아배야 우리 아배야
 4·19 때 총 맞아 가신 4·19 때 총 맞아 가신 우리 오빠야 우리 오빠야
 미군 부대에 몸 팔려가신 미군 부대에 몸 팔려가신 우리 언니야

음음 나온다

〈점아 점아 콩점아〉

한 가족의 삶에 각인된 한국근현대사의 비극을 경쾌한 멜로디에 담아내 그 고통을 역설적으로 강조한 〈점아 점아 콩점아〉, 봉건적 삶의 질곡 속에 고통받는 여성의 삶을 다채로운 시점으로 노래한 〈진주난봉가〉, 이별한 연인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보편적 정서를 서정적으로 노래한 〈개나리고개〉 등이 대표적이다. 당시에는 낯선 민요 가락에 익숙한 내용과 정서를 담아, 지속되는 삶의 고통을 예각화해 드러낸다. 구전 가요인 〈광복군 아리랑〉, 〈해방가〉, 〈사노라면〉 등을 통해서 역사적 삶의 긍정성을 환기하기도 한다.

셋째, 한국사의 비극을 다룬 시(시조)를 노래로 만들었다. 식민지시대 국권 상실의 비애를 노래한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는 변규백이, 4·19혁명 때 희생당한 젊은이의 넋을 기린 이영도의 〈진달래〉는 한태근이, 동학 농민군의 거역의 정신을 그린 김지하의 〈늑두꽃〉은 조념¹⁸⁾이 작곡했다. 작곡가들의 성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비극

야(15), 개나리 고개(15회), 진주난봉가(14회), 점아점아 콩점아(13회).

을 현재화하려는 문제의식은 맞닿아 있다.

시에 곡을 붙이는 과정에는 다양한 변화가 나타난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는 원 시의 1연, 7연, 10연만 노래 가사로 활용한다.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닿는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 따라 꿈속을 가듯 정처 없이 걸어가네 걸어만 간다

나는 온몸에 꽃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설움이 어울린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 걸어 봄 신명이 가슴에도 지켰네 지켰나보다

나비 제미야 깔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마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 기름 바른 이가 지심 매던 그 들이라도 보고 싶네 보고만 싶네

후렴 :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네 빼앗기겠네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총 10연의 시를 3절의 노래로 만들되, 통사구문이 같은 1연과 10연을 1절과 2절로 대구가 되도록 배치하고 구문이 다른 7연을 3절로 배치한다. 그리고 후렴구를 각 연에 반복한다. 1절은 정처 없이 논길을 걸어가며 보는 풍경을, 2절은 봄 신명을 느끼며 자연에 스며든 상태를, 3절은 그 들에 머문 새, 꽃,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김민기는 이 노래의 1, 2절 사이에 3절을 삽입하여 낭송¹⁹⁾함으로써, 3절이 낭송과 노래로 변주되며 반복되는 안정적 구성을 취하였다. 반면 이영도의 〈진달래〉는 2연으로 구성된 연장시조를 고스란히 2절의 노래로, 김지하의 〈녹두꽃〉은 1연으로 구성된 시를 분절하여 2절의 노래로 만들었다. 이처럼 1970-80년대 초기에는 역사의식을 반영한 시(시조)를 노래로 만들으로써, 역사와 현실을 반영한 노래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당시 창작과비평사에서 시집을 출간한 고은, 김명인, 김수영, 김준태, 김지하, 김창완, 문병란, 박두진, 박몽구, 신경림, 신동엽,

18) 조념은 조선 프롤레타리아음악동맹의 발기인으로, 김순남과 조선프롤레타리아 음악동맹 공장음악회를 함께 다닌 바 있다. 김지하의 「보리피리」, 「황톳길」, 「녹두꽃」, 「서울길」 등을 노래로 만들었다. 식민지기 활동한 김순남이 월북하면서 사라진 남한의 진보적인 노래의 전통을 조념이 잇고 있다. 조념, 『황톳길』(백영사, 1971); 『조념가곡전집』(예술, 2013).

19)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노래를 찾는 사람들 1집》, 노래를 찾는 사람들(1984).

양성우, 윤동주, 이성부, 전봉준, 정희성, 조태일, 하종오, 홍일선, 황명걸 등의 시를 노래책 중간중간에 삽입함으로써 피지배자의 고통과 삶의 비애를 드러내고 현실 문제를 구조적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한다.

2. 대학가 노래 씨름에서 작사 작곡을 겸비한 창작층이 대거 등장한다. 이들은 노래책을 만들고 노래를 창작하고 노래를 녹음하여 널리 보급한다. 『메아리 4집』의 신출곡 50곡[부록 11]과 『메아리 5집 증보판』의 신출곡 29곡[부록 12] 중 회원 창작곡이 35곡(44%)이다. 1978년부터 1983년까지 메아리에서 발간한 책과 카세트 테이프²⁰⁾에 수록된 창작곡 목록은 표3에 제시한다.

표3-메아리의 창작곡 목록

	작사	작곡	메아리 초창기 노래책 (1978)	메아리 노래책 4집 (1979)	메아리 테이프 1집 (1979)	메아리 테이프 2집 (1980)	메아리 5집 증보판 (1982)	메아리 테이프 3집 (1983)
가려나 친구여	문승현	문승현		○				
강	신경림	김창남		○		○		
군중의 함성	김의철	김의철	○					○
그루터기	한동헌	한동헌		○		○		
기도	김소월	문승현	○			○		
꽃	김창남	김창남					○	
꽃삼여 타고	양성우	박윤우					○	
나무	김윤성	한동헌		○				
내 눈길 닿는 곳 어디나	김창남	문승현					○	
노래	한동헌	한동헌		○	○			
닭	문승현	문승현					○	
들을 지나서	헤르만 헛세	한동헌		○				

20) 메아리 카세트 테이프에는 표3에 제시한 메아리의 창작곡 외에 다른 노래도 수록했다. 1집 총 16곡 중 메아리 창작곡 8곡 외에 〈기지촌〉, 〈바다〉, 〈개관으로 젖히는 거지 뿔〉, 〈금관의 예수〉(김민기), 〈철새〉, 〈풍선〉(한돌), 〈애사당〉(김영동), 〈진달래〉(이영도)를 실었다. 2집 총 17곡 중 메아리 창작곡 7곡 외에 〈강변에서〉, 〈소금땀 흘리흘리〉, 〈내 나라 내 겨레〉, 〈공장의 불빛〉, 〈이 세상 어딘가에〉(김민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이상화), 〈언덕에 서서〉(김문환), 〈민주〉(안혜경), 〈기러기〉, 〈이 세계 절반은 나〉(Ross Mellon)를 수록했다. 3집은 총 17곡 중 메아리 창작곡 4곡 외에 〈차돌맹이〉(김민기), 〈못 생긴 얼굴〉, 〈갈 수 없는 고향〉, 〈땅〉(한돌), 〈누나의 얼굴〉, 〈개구리 소리〉(김영동), 〈작업장〉, 〈철레꽃〉(박태준), 〈타는 목마름으로〉(이성현), 〈녹두꽃〉(조념), 〈황혼〉, 〈까치길〉(안혜경), 〈유랑극단〉을 실었다.

맹인부부 가수	정호승	박윤우					○	○
바람 땀	박희준	한동헌		○	○			
비료지기	정창교	한동헌		○	○			
산처일기	이우중	박용범		○	○			
신개발지구에서	엄봉훈	한동헌				○		
씨주	김대항	한동헌		○		○		
아버지를 찾아가는 아이	문승현	문승현		○	○			
약수 뜨러 가는 길	정종수	정종수			○		○	
여행가	이연현	문승현					○	
영산강	문승현	문승현			○		○	
오월의 노래	문승현	문승현					○	○
외진 무덤	정화선	조경옥					○	
웃어보자	문승현	문승현		○				
원	정동진	한동헌		○				
이 땅의 축복 위하여	김의철	김의철				○	○	
저녁바람	강은교	한동헌		○				
정원	강은교	한동헌					○	
찬비 오는 새벽	문승현	문승현		○	○			
청개구리	배석현	한동헌		○				
친구에게	이영웅	이영웅				○		
하루가 다 가도록	김제섭	김제섭					○	
하얀 비행기	김제섭	김제섭						○
허공에 뜬 구름	문승현	문승현		○				

메아리는 이전에 수록한 노래는 재수록하지 않고 새 노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노래책과 카세트 테이프를 제작하였다. 창작곡은 대부분 노래 책에 먼저 수록한 후 공연용·보급용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했으나,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한 이후 노래책에 수록한 경우도 보인다. 〈약수 뜨러 가는 길〉, 〈영산강〉, 〈신개발지구에서〉, 〈이 땅의 축복 위하여〉, 〈친구에게〉, 〈하얀 비행기〉만 카세트 테이프에 먼저 녹음한 후 책에 실었다. 기존의 노래책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신간 노래책을 발간하되, 이전 책에 수록한 노래는 이후 발간한 책에는 다시 수록하지 않았다. 이는 새 창작곡을 보급할 목적이 강했음을 뜻한다. 노래책마다 고유성을 부여하기 위함이기도 했던 듯하다.

창작곡 목록을 보면, 문승현(작곡 11, 작사 8), 한동헌(작곡 12, 작사 2), 김창남, 김제섭, 김의철(작곡 2, 작사 2), 박윤우(작곡 2), 조경옥 등이 노래를 만들었다. 이들은 전문 작사·작곡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에 곡을 붙이거나 직접 작사·작곡을 하였다. 번안곡·전송곡을 부르는 데 그치지 않고 당대에 필요한 노래를 직접 만들어 부른 것이다. 오월 광주의 희생자를 추모한 〈오월의 노래〉, 〈넘어가세〉, 죽은 이의 넋을 기린 〈꽃상여 타고〉, 〈외진 무덤〉, 〈비단 안개〉, 자연에서 삶의 슬픔과 설움을 달래는 〈영산강〉, 〈이 땅의 축복 위하여〉, 비루한 현실에서도 더 나은 삶을 꿈꾸는 〈내 눈길 닿는 곳 어디나〉 등이 대표적이다.

식민지시대부터 활동한 작곡가 조념, 당시 국악을 전공한 변규백, 어려서부터 음악에 노출되어 음반을 낸 김민기를 제외하면, 문승현, 박윤우, 한동현, 김창남 등은 메아리에서 활동하며 노래를 만든 경우이다. 유년시절부터 피아노를 접하거나 청소년기에 통기타를 치면서 음악적 소양을 갖춘 이들은 노래 씨름에 모여 사회과학서적, 시집 등을 읽으며 문제의식을 키워 시대를 반영한 노래를 만들어 삶의 변화를 꾀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개인보다는 우리를, 통속적 사랑보다는 시대적 문제의식을 노래에 담으려 했다. 그러나 당시 참조할 만한 노래는 찬송가, 번안곡, 김민기의 노래 정도였다. 하여 찬송가 중에서도 종교색이 덜한 노래를 선별하거나 혹은 영가를 선택하여 한국 사회를 반영한 비판적 가사로 번안하였으며, 김민기의 노래를 따라부르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노래를 만들었다. 기성의 노래와 다른 노래를 부르고 싶어하는 욕구가 당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으로,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을 반영하는 노래 창작으로 이어진 것이다.

씨름 룬에서, 강당과 집회장에서 싱어롱의 형태로, 폐창의 방식으로, 공연의 형태로 이들이 부른 노래는 소극적이고 나약한 지식인의 내면을 고백하며, 역사와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려는 소박한 의지를 드러내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역사의식을 도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자신을 성찰하며 반성하는 내용의 노래는 개인의 내면을 다지는 데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함께 한 이들과의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고, 비슷한 문화경험을 한 이들 간의 사회적 연대감을 갖게 한다. 노래를 통한 반성과 성찰은 역사적 개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고, 비민주적인 정치체제에 대한 비판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위한 실천적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였다.

특히나 1980년 5월의 역사적 현장에 함께 하지 못한 부채감은 이후

노래운동이 현장 운동에 복무해야 할 필요성으로 이어져, 노래 씨클에서 활동한 이들이 졸업 후 노동 및 농민 운동 단체에서 노래운동을 하게끔 이끈다. 대학을 떠난 이들이 사회문화단체 <새벽>에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문화운동이 활성화되고 노동, 농민, 교육 등의 부문운동이 다양해지면서 대상과 현장을 반영한 새로운 노래가 대중화된다. 그 과정에서 기독교 농민회 대상의 『농민가락 차차차』, 놀이패 한두레의 『가지꽃』, 민요연구회의 『우리가락 좋을시고』, 가톨릭 민속연구회의 『노래하는 예수』, 노동운동계인 새벽의 『또다시 들을 빼앗겨』 등의 노래책 및 공연 팸플렛 등이 다양하게 나오기 시작한다. 쉽게 따라 부르며 익히기 쉬운 노래를 통해 노동자, 농민, 어린이 들을 계몽, 교육하는 방식으로 노래의 기능이 확대된다.

IV. 맺음말

1970년대 후반, 종교계와 대학가에서는 문화자본을 상대적으로 많이 가진 이들이 좀 더 적게 가진 이들이 모인 곳으로 활동의 장을 옮기며 노래운동의 싹을 틔웠다. YMCA에서 싱어롱Y를 진행하던 이들이 영어로 된 노래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중간자 모임에서 부를 노래를 만들고, 대학가의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 부를 노래를 만드는 방식으로 한국적 현실에 맞는 노래를 부르며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를 꾀하고자 하였다.

음악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서양 음악과 다른 한국 음악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다. 서양에 종속된 음악에서 벗어나 자생적인 한국음악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젊은 작곡가들이 모여 제3세대라는 동인을 만들어 활동하며²¹⁾ 한국음악론, 노래운동론, 민족음악론 등의 담론을 통해 음악의 사회적 실천에 관해 논의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김창남, 이영미, 문승현, 박윤우 등이 활동한 무크지 『노래』를 통해 대중음악 영역으로 확대된다.

그 과정에서 현장에서 부를 노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예술성을

21) 이진용, 「민족음악론, 그 이론과 실천」, 『월간 사회평론』 92-1(1992), 256-257쪽.

강조한 어려운 노래와 현장성을 강조한 쉬운 노래, 악보를 읽으며 부르는 낯선 노래와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익숙한 노래 사이에서 고민하는 과정에서, 1980년대 초반까지의 '노래를 위한 운동'이 1980년대 중반부터는 '운동을 위한 노래'²²⁾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들은 노래를 만들어 부르며 문화운동을 넘어선 예술운동 차원으로 고민을 구체화했다. 그 과정은 청년들 사이의 미학 논쟁으로 이어져, 운동/예술, 생각/감각, 정치적 각성/감각적 충격, 대중성/예술성의 논의로 구체화되었다. 그 결과 대학가 노래 씨클, 노동계 문화패를 중심으로 부르던 노래가 1984년부터는 〈노래를 찾는 사람들〉을 통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된다. 집회와 시위 현장에서 부르고 들던 노래를 공식적인 음반을 통해, 공중파의 방송을 통해 일상적으로 접하게 된 것이다.

22) 위의 논문, 106쪽.

참 고 문 헌

1. 1차 자료

- 『내일을 위한 노래』. 크리스찬 아카데미, 1977.
『메아리 초창기 노래책』. 서울대 메아리, 1978.
『메아리 4집』. 서울대 메아리, 1979.
『짧은 예수』. 한국기독교장로회청년회 전국연합회, 1981.
『메아리 5집 증보판』. 서울대 메아리, 1982.
『노래는 멀리멀리: 1977-1986』 상하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6.

2. 단행본

- 강원용, 『역사의 언덕에서 3, Between and Beyond』. 한길사, 2003.
_____, 『역사의 언덕에서 4, 미완성의 민주화』. 한길사, 2003.
이영미, 『광장의 노래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인물과 사상사, 2018.
정유하, 『그래도 우리는 노래한다』. 한울, 2017.
조념, 『황톳길』. 백영사, 1971.
_____, 『조념가곡전집』. 예술, 2013.

3. 논문

- 김형찬, 「1970년대 통기타 음악과 청년문화의 인프라」. 『대중음악과 노래운동, 그리고 청년문화』. 한울, 2004, 159-192쪽.
박정선, 「해방가요의 이념과 형식」. 『어문학』 99, 한국어문학회, 2008, 199-230쪽.
소영현, 「참여 과잉 시대의 비-시민 정치와 광장의 탈구축」. 『한국근대문학회 2018년 상반기 학술대회 자료집』, 2018년 6월 2일, 별지 3쪽.
이건용, 「민족음악론, 그 이론과 실천」. 『월간 사회평론』, 92-1, 사회평론, 1992, 256-259쪽.
_____, 「80년대 음악론의 전개과정」. 『음악학』 2권, 한국음악학학회, 1990, 87-129쪽.
이영미, 「민중가요 비합법 음반에 대하여」. 『한국음반학』 10, 한국고음반연구회, 2000, 263-286쪽.
_____, 「노래로 본 학생운동의 역사」. 『역사비평』 39, 역사비평사, 1997, 117-128쪽.
이우재, 「1979년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 『역사비평』 12, 역사비평사, 1991, 306-323쪽.
이정자, 「1970년대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여성인간화 교육」. 『젠더연구』 19, 한국여성연구소, 2014, 1-18쪽.

국 문 초 록

일찍이 해방기에는 거리 곳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함께 노래를 부르며 해방의 감격을 분출한 바 있다. 다양한 개인이 공공의 장소에 모여 부르던 노래는 1970년대 중후반부터 종교계와 대학가의 노래책으로 집적되기 시작하여 1980년대 중반부터는 노동, 문화, 교육 단체에서도 노래책을 발간하는 방식으로 확산된다. 이 연구에서는 노래운동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1983년까지 발간된 노래책과 그 수록곡의 특징을 살핍으로써, 노래운동 형성기의 특징을 개관하는 예비적 고찰을 진행하였다.

노래운동 형성기에는 공동체의 삶을 지향하는 내용의 국내 창작곡이 거의 없었고 그러한 노래를 만들 창작 주체도 충분치 않았다. 때문에 번안곡을 만들고 민요를 재호출하고 시와 시조에 곡을 붙이는 방식으로 현실을 반영한 노래를 모색하였다. 새로운 창작곡은 대학가 노래 써클 메아리에서 대거 등장한다. 이들은 처음부터 운동을 위한 노래가 아니라 좋은 노래에 대한 욕구에서 노래를 따라 부르며 만들기 시작했다. 개인보다는 우리를, 통속적 사랑보다는 시대적 문제의식을 드러낸 노래를 만들었다.

기성의 노래와 다른 노래를 부르고 싶어하는 욕구가 당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으로,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을 반영하는 노래 창작으로 이어진 것이다. 자신을 성찰하며 반성하는 내용의 노래는 개인의 내면을 다지는 데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함께 한 이들과의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고, 비슷한 문화경험을 한 이들 간의 사회적 연대감을 갖게 한다. 노래를 통한 반성과 성찰은 역사적 개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고, 비민주적인 정치체제에 대한 비판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위한 실천적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였다.

투고일 2018. 6. 27.

심사일 2018. 7. 11.

게재 확정일 2018. 8. 27.

주제어(keyword) 노래책(Song book), 노래운동(Song movement), 크리스찬 아카데미(Christian Academy), 메아리(Meari)

[부록]

- ① 『내일을 위한 노래』, 크리스찬 아카데미, 1977. [총 168곡]
- ② 『메아리 초창기 노래책』, 서울대 메아리, 1978. [총 19곡]
- ③ 『메아리 4집』, 서울대 메아리, 1979. [총 101곡]
- ④ 『젊은 예수』, 한국기독교장로회청년회 전국연합회, 1981. [총 106곡]
- ⑤ 『메아리 5집 증보판』, 서울대 메아리, 1982. [총 139곡]

[부록 1] ①과 ④의 중복곡 38곡

〈가다가 가다가〉, 〈가라 모세〉, 〈가서 외치라〉, 〈가요 나는 가요〉, 〈그리운 얼굴들〉, 〈그 여름〉, 〈나가자 앞장 서서〉, 〈내가 이웃을 찾을 때〉, 〈내일을 위한 노래〉, 〈농민가〉, 〈동학의 노래〉, 〈떡을 뽀시다〉, 〈보람된 생활〉, 〈비록 비정한 도시일지나〉, 〈선구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아름다운 사람〉,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어찌 같거나〉, 〈여기 오소서〉, 〈오 자유〉, 〈외로운 들길〉, 〈우리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믿음 치솟아〉, 〈우리의 소원〉, 〈우린 한 형제〉, 〈이런 세상 정말 원해〉, 〈이름도 없는 너희가 그리스도라〉, 〈이 세상 어딘가에〉, 〈이 세계 절반은 나〉, 〈임마누엘 찬가〉, 〈작은 세상〉, 〈잠자는 이들〉, 〈진달래〉, 〈춤의 왕〉, 〈큰 힘 주는 조합〉, 〈한 걸음 더〉, 〈허재비〉, 〈흔들지지 않게〉

[부록 2] ①의 노래 중 ④에서 배제한 130곡

〈감사 올리네〉, 〈감사 찬양〉, 〈값 비싼 향유는 못 드러도〉, 〈강 기슭 언덕에〉, 〈강이 풀리면〉, 〈거룩한 그 이름〉, 〈거친 땅에 기쁨이〉, 〈고모 역〉, 〈고요한 아침의 나라〉, 〈고운새〉, 〈고향2〉, 〈구주를 영접하라〉, 〈그 뉘신가 오명가명〉, 〈그리움〉, 〈그 여름〉, 〈기름 부어주소〉, 〈기다리는 사람〉, 〈기뻐 노래해〉, 〈기쁜 날이라〉, 〈기억하소서〉, 〈꽃동네 새동네〉, 〈꿈길 따라 노을 따라〉, 〈나그네〉, 〈나는 가리〉, 〈나는 따르리라〉, 〈내 님과 함께〉, 〈내 마음의 꽃〉, 〈내 친구〉, 〈내 혼아 일어나라〉, 〈너는 아니〉, 〈노동자의 찬송〉, 〈노래를 부르자〉, 〈노을〉, 〈노총가〉, 〈놀라운 꿈〉, 〈당신 만났네〉, 〈당신의 평화로〉, 〈당신이 좋아요〉, 〈대기

속의 새처럼), 〈도레미송〉, 〈말하라〉, 〈매일매일〉, 〈머리 어깨 무릎 발〉, 〈멋있는 사람〉, 〈몸된 말씀 이루자〉, 〈바둑이와 고양이〉, 〈바람만이 아는 대답〉, 〈바람아 구름아〉, 〈박우물〉, 〈박꽃〉, 〈밤 내 흰 물살로〉, 〈비가 내리네〉, 〈빛속에서〉, 〈빠꾸기〉, 〈산 너머 산〉, 〈새로운 사람〉, 〈생명주여〉, 〈생일축하노래〉, 〈서로 사랑하라〉, 〈세상 사랑하시사〉, 〈세상에 외치고 싶어〉, 〈세상은 돌고 돌고 돌아〉, 〈소나무 가지 사이로〉, 〈송영〉, 〈숲길로 가면〉, 〈시냇물〉, 〈시편 8편〉, 〈쓸쓸한 골짜기〉, 〈씨앗의 노래〉, 〈씻어 주소서〉, 〈아가씨들아〉, 〈아버지여 자유를〉, 〈안녕 친구여〉, 〈알렐루야〉, 〈알 수 없네〉, 〈어두움 뚫고〉, 〈어둠 속에 빛이 왔으나〉, 〈어린 양〉, 〈어이해〉, 〈언덕에 서서〉, 〈여름날〉, 〈여행자〉, 〈열두 대문〉, 〈열 작은 아이〉, 〈영광의 주 함께 하신다〉, 〈예배하자 우리 주님〉, 〈오 참사랑〉, 〈왕관 드리자〉, 〈우리는 당신의 종〉, 〈우리로 하나되게 하소서〉, 〈우리의 조국 우린 하나〉, 〈우정〉, 〈유다와 마리아〉, 〈이 땅 위에 좋은 것이〉, 〈이 밤 깊으면〉, 〈이 아름다운 땅에〉, 〈이제도 먹여 주소서〉, 〈일곱 기쁨〉, 〈자유로운 노동자〉, 〈자장가〉, 〈작은 새의 열망〉, 〈저녁〉, 〈젊은이여 앞으로〉, 〈젊은이의 노래〉, 〈주께 가까이〉, 〈주님은 세상 쥐셨네〉, 〈주만 따라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주여 오소서〉, 〈주여 밝은 아침〉, 〈주여 우리 평화 주오〉, 〈주 예수 말씀하셨다〉, 〈주 찬양해〉, 〈주 하나님 크시도다〉, 〈참사랑〉, 〈천사들 돌문 열었네〉, 〈청년의 노래〉, 〈7월의 노래〉, 〈큰 사랑〉, 〈태양을 찾아가는 소년〉, 〈티야우야〉, 〈평화의 기도〉, 〈풍성하신 주의 은혜〉, 〈하늘 나는 새를 보라〉, 〈함께 모여 살면〉, 〈해방시키라〉, 〈햇빛이 비치면〉, 〈화롯불 앞에서〉, 〈활짝 웃어요〉, 〈He Careth for You〉

[부록 3] ①에 없던 ④의 추가곡 135곡

〈감사 올리네〉, 〈감사 찬양〉, 〈값 비싼 향유는 못 드러도〉, 〈강 기슭 언덕에〉, 〈강이 풀리면〉, 〈거룩한 그 이름〉, 〈거친 땅에 기쁨이〉, 〈고모 역〉, 〈고요한 아침의 나라〉, 〈고운새〉, 〈고향2〉, 〈구주를 영접하라〉, 〈그 뉘신가 오명가명〉, 〈그리움〉, 〈그 여름〉, 〈기름 부어주오〉, 〈기다리는 사람〉, 〈기쁨 노래해〉, 〈기쁜 날이라〉, 〈기억하소서〉, 〈꽃동네 새동네〉, 〈꿈길 따라 노을 따라〉, 〈나그네〉, 〈나는 가리〉, 〈나는 따르리라〉, 〈내 님과 함께〉, 〈내 마음의 꽃〉, 〈내 친구〉, 〈내 혼아 일어나라〉,

〈너는 아니〉, 〈노동자의 찬송〉, 〈노래를 부르자〉, 〈노을〉, 〈노총가〉,
 〈놀라운 꿈〉, 〈당신 만났네〉, 〈당신의 평화로〉, 〈당신이 좋아요〉, 〈대기
 속의 새처럼〉, 〈도레미송〉, 〈말하라〉, 〈매일매일〉, 〈머리 어깨 무릎
 발〉, 〈멋있는 사람〉, 〈뭉뚱 말씀 이루자〉, 〈바둑이와 고양이〉, 〈바람만이
 아는 대답〉, 〈바람아 구름아〉, 〈박우물〉, 〈박꽃〉, 〈밤 내 흰 물살로〉,
 〈비가 내리네〉, 〈빗속에서〉, 〈뺨꾸기〉, 〈산 너머 산〉, 〈새로운 사람〉,
 〈생명주여〉, 〈생일축하노래〉, 〈서로 사랑하라〉, 〈세상 사랑하시사〉,
 〈세상에 외치고 싶어〉, 〈세상은 돌고 돌고 돌아〉, 〈소나무 가지 사이로〉,
 〈송영〉, 〈숲길로 가면〉, 〈시냇물〉, 〈시편 8편〉, 〈쓸쓸한 골짜기〉, 〈씨앗의
 노래〉, 〈씻어 주소서〉, 〈아가씨들아〉, 〈아버지여 자유를〉, 〈안녕 친구
 여〉, 〈알렐루야〉, 〈알 수 없네〉, 〈어두움 뚫고〉, 〈어둠 속에 빛이 왔으나〉,
 〈어린 양〉, 〈어이해〉, 〈언덕에 서서〉, 〈여름날〉, 〈여행자〉, 〈열두 대문〉,
 〈열 작은 아이〉, 〈영광의 주 함께 하신다〉, 〈예배하자 우리 주님〉,
 〈오 참사랑〉, 〈왕관 드리자〉, 〈우리는 당신의 종〉, 〈우리로 하나되게
 주소서〉, 〈우리의 조국 우리 하나〉, 〈우정〉, 〈유다와 마리아〉, 〈이 땅
 위에 좋은 것이〉, 〈이 밤 깊으면〉, 〈이 아름다운 땅에〉, 〈이제도 먹여
 주소서〉, 〈일곱 기쁨〉, 〈자유로운 노동자〉, 〈자장가〉, 〈작은 새의 열망〉,
 〈저녁〉, 〈젊은이여 앞으로〉, 〈젊은이의 노래〉, 〈주께 가까이〉, 〈주님은
 세상 쥐셨네〉, 〈주만 따라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주여 오소서〉,
 〈주여 밝은 아침〉, 〈주여 우리 평화 주오〉, 〈주 예수 말씀하셨다〉,
 〈주 찬양해〉, 〈주 하나님 크시도다〉, 〈참사랑〉, 〈천사들 들문 열었네〉,
 〈청년의 노래〉, 〈7월의 노래〉, 〈큰 사랑〉, 〈태양을 찾아가는 소년〉,
 〈티야우야〉, 〈평화의 기도〉, 〈풍성하신 주의 은혜〉, 〈하늘 나는 새를
 보라〉, 〈함께 모여 살면〉, 〈해방시키라〉, 〈햇빛이 비치면〉, 〈화투불
 앞에서〉, 〈활짝 웃어요〉, 〈He Careth for You〉

[부록 4] ② 19곡

〈가라 모세〉, 〈군중의 함성〉, 〈금관의 예수〉, 〈기도〉, 〈기지촌〉, 〈깃발
 2〉, 〈꽃 피우는 아이〉, 〈내 나라 내 겨레〉, 〈농민가〉, 〈뺨앓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사노라면〉, 〈어두움 뚫고〉, 〈언덕에 서서〉, 〈우리 승리하
 리라〉, 〈종이연〉, 〈진달래〉, 〈차돌이〉, 〈춤의 왕〉, 〈허재비〉

[부록 5] ③과 ⑤의 중복곡 63곡

가라 모세), <강변에서>, <개나리 고개>, <개관으로 젖히는 거지 뉘>, <고궁의 담>, <공장의 불빛>, <그날>, <그루터기>, <그 사이>, <금관의 예수>, <기도>, <기지촌>, <꽃분아 어딴니>, <꽃 피우는 아이>, <나무>, <나비>, <내가 찾는 아인>, <내 나라 내 겨레>, <내일이 오면>, <노래>, <누나의 얼굴>, <눈>, <물 좀 주소>, <바다>, <바람과 나>, <바람만이 아는 대답>, <바람 쐬쟁>, <백구>, <불행아>, <비료지기>, <비아비아>,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상록수>, <새벽길>, <서울로 가는 길>, <서울 하늘>, <식구생각>, <쇠주>, <아버지를 찾아간 아이>, <아침 이슬>, <어찌 같거나>, <언덕에 서서>, <오 자유>, <옥이의 슬픔>, <이 세상 어딘가에>, <이 세계 절반은 나>, <인상>, <인형>, <작은 세상>, <작은 연못>, <잘 가오>, <저 부는 바람>, <전파하세>, <종이연>, <진달래>, <차돌이>, <찬비 오는 새벽>, <춤의 왕>, <친구>, <풍선>, <하룻밤>, <허재비>, <혼자로는>

[부록 6] ⑤에서 ③ 배제한 37곡

<가려나 친구여>, <강>, <그리워라>, <길>, <꿈으로 오던 한 사람>, <내 사랑하는 님을 만나면>, <노래할 이유 있네>, <당신께 드려요>, <들에 핀 저 꽃은>, <들을 지나서>, <만민에게 전하자>, <말하라>, <몽계 구름>, <바람 부는 길>, <사랑하는 이여>, <사철바람>, <산처 일기>, <세상에 외치고 싶어>, <아름다운 여인 유리안>, <아하 누가 그렇게>, <안녕 친구여>, <어이해>, <오늘 오후>, <웃어보자>, <願>, <이제도 먹여주소서>, <잃어버린 고향>, <저녁바람>, <조용히 들어요>, <창문가의 비>, <철새>, <청개구리>, <타박네야>, <허공에 뜬 구름>, <헛사랑>, <Down By The River Side>, <Let there be peace on earth>, <Puff>

[부록 7] ③에 없던 ⑤의 추가곡 77곡

<가다가 가다가>, <가뭇>, <가요 나는 가요>, <가을 편지>, <개구리 소리>, <거친 땅에 기쁨이>, <고무줄 놀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 <고향 가는 길>, <그 여름>, <금사슬 은사슬>, <기러기>, <꽃>, <꽃상여 타고>, <나가자 앞장서서>, <나그네 길>, <내 눈길 닿는 곳 어디나>,

〈넘어가네〉, 〈네가 기다린다면〉, 〈녹두꽃〉, 〈늙은 군인의 노래〉, 〈닭〉,
 〈당신일까〉, 〈두리번거린다〉, 〈두어라 가자〉, 〈들녘〉, 〈맹인부부가수〉,
 〈모두가 주인되어〉, 〈목련〉, 〈못생긴 얼굴〉, 〈민주〉, 〈밤벚놀이〉, 〈보람
 된 생활〉, 〈비단안개〉, 〈사나이〉, 〈사노라면〉, 〈산 너머 산〉, 〈선구자〉,
 〈세상은 돌고 돌아〉, 〈소〉, 〈스텐카라친〉, 〈아다다〉, 〈아름다운 사람〉,
 〈아리랑〉, 〈아무도 아무데도〉, 〈애사당〉, 〈약수 뜨러 가는 길〉,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어두움 뚫고〉, 〈어루만져 주는 이〉, 〈에레나〉, 〈여행
 가〉, 〈영산강〉, 〈오월의 노래〉, 〈외진 무덤〉, 〈우리의 믿음 치솟아〉,
 〈우린 한 형제〉, 〈이 땅 위에 좋은 것이〉, 〈이 땅의 축복 위하여〉,
 〈이쁜 마음〉, 〈일요일이 다 가는 소리〉, 〈잃어버린 전설〉, 〈자장가〉,
 〈젊은이의 노래〉, 〈정원〉, 〈천리길〉, 〈친구야〉, 〈친구에게〉, 〈터〉, 〈하루
 가 다 가도록〉, 〈한 걸음 더〉, 〈한중가〉, 〈행복의 나라〉, 〈황혼〉, 〈회파
 람〉, 〈희망가〉

[부록 8] ①과 ③의 중복곡 16곡

〈가라 모세〉, 〈말하라〉, 〈바람만이 나는 대답〉, 〈세상에 외치고 싶어〉,
 〈안녕 친구여〉, 〈어 이해〉, 〈어찌 같거나〉, 〈언덕에 서서〉, 〈오 자유〉,
 〈이 세상 어딘가에〉, 〈이 세계 절반은 나〉, 〈이제도 먹여주소서〉, 〈작은
 세상〉, 〈진달래〉, 〈춤의 왕〉, 〈허재비〉

[부록 9] ③과 ④의 중복곡 38곡

〈가라 모세〉, 〈강변에서〉, 〈고궁의 담〉, 〈공장의 불빛〉, 〈그날〉, 〈그
 사이〉, 〈금관의 예수〉, 〈기지촌〉, 〈꽃 피우는 아이〉, 〈내 나라 내 겨레〉,
 〈누나의 얼굴〉, 〈눈〉, 〈바다〉, 〈바람과 나〉, 〈비아비아〉,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상록수〉, 〈서울로 가는 길〉, 〈서울하늘〉, 〈식구생각〉,
 〈아침이슬〉, 〈아하 누가 그렇게〉, 〈어찌 같거나〉, 〈오 자유〉, 〈이 세상
 어딘가에〉, 〈이 세계 절반은 나〉, 〈작은 세상〉, 〈작은 연못〉, 〈잘 가오〉,
 〈저 부는 바람〉, 〈종이연〉, 〈진달래〉, 〈차돌이〉, 〈춤의 왕〉, 〈친구〉,
 〈타박네야〉, 〈허재비〉, 〈혼자로는〉

[부록 10] ④와 ⑤의 중복곡 51곡

〈가뭄〉, 〈강변에서〉, 〈개구리 소리〉, 〈고궁의 담〉, 〈고무줄 놀이〉, 〈고향 가는 길〉, 〈공장의 불빛〉, 〈그날〉, 〈그 사이〉, 〈금관의 예수〉, 〈금사슬 은사슬〉, 〈기러기〉, 〈기지촌〉, 〈꽃 피우는 아이〉, 〈내 나라 내 겨레〉, 〈녹두꽃〉, 〈누나의 얼굴〉, 〈눈〉, 〈늙은 군인의 노래〉, 〈두어라 가자〉, 〈목련〉, 〈민주〉, 〈바다〉, 〈바람과 나〉, 〈밤벚놀이〉, 〈비야 비야〉,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사나이〉, 〈사노라면〉, 〈상록수〉, 〈서울로 가는 길〉, 〈서울 하늘〉, 〈스텐카라친〉, 〈식구 생각〉, 〈아다다〉, 〈아리랑〉, 〈아침 이슬〉, 〈애사당〉, 〈에레나〉, 〈작은 연못〉, 〈잘 가오〉, 〈저 부는 바람〉, 〈종이연〉, 〈차돌이〉, 〈천리길〉, 〈친구〉, 〈한중가〉, 〈혼자로는〉, 〈황혼〉, 〈휘파람〉, 〈희망가〉

[부록 11] ③의 신출곡 50곡

〈가려나 친구여〉, 〈강〉, 〈개나리 고개〉, 〈개관으로 젖히는 거지 뿔〉, 〈그루터기〉, 〈그리워라〉, 〈길〉, 〈꽃분아 어딴니〉, 〈꿈으로 오던 한 사람〉, 〈나무〉, 〈나비〉, 〈내가 찾는 아인〉, 〈내 사랑하는 님을 만나면〉, 〈내일이 오면〉, 〈노래〉, 〈노래할 이유 있네〉, 〈당신께 드려요〉, 〈들에 핀 저 꽃은〉, 〈들을 지나서〉, 〈만민에게 전하자〉, 〈물 좀 주소〉, 〈몽계구름〉, 〈바람 부는 길〉, 〈바람 쐬쐬〉, 〈백구〉, 〈불행아〉, 〈비료지기〉, 〈사랑하는 아이〉, 〈사철바람〉, 〈산처일기〉, 〈새벽길〉, 〈쇠주〉, 〈아름다운 여인 유리안〉, 〈아버지를 찾아간 아이〉, 〈오늘 오후〉, 〈옥이의 슬픔〉, 〈웃어보자〉, 〈원〉, 〈인상〉, 〈인형〉, 〈잃어버린 고향〉, 〈저녁바람〉, 〈전과 하세〉, 〈조용히 들어요. 찬비 오는 새벽〉, 〈창문가의 비〉, 〈철새〉, 〈청개구리〉, 〈풍선〉, 〈하룻밤〉, 〈허공에 뜬 구름〉, 〈헛사랑〉, 〈Down By The River Side〉

[부록 12] ⑥의 신출곡 29곡

〈가을 편지〉, 〈꽃〉, 〈꽃상여 타고〉, 〈내 눈길 닿는 곳 어디나〉, 〈넘어가네〉, 〈네가 기다린다면〉, 〈닭〉, 〈당신일까〉, 〈두리번거리다〉, 〈들녘〉, 〈맹인부부가수〉, 〈못생긴 얼굴〉, 〈비단안개〉, 〈소〉, 〈아무도 아무데도〉, 〈약수 뜨러 가는 길〉, 〈어루만져 주는 이〉, 〈여행가〉, 〈영산강〉, 〈오월의

노래), 〈외진 무덤〉, 〈이 땅의 축복 위하여〉, 〈이쁜 마음〉, 〈일요일이
다 가는 소리〉, 〈정원〉, 〈친구야〉, 〈터〉, 〈하루가 다 가도록〉, 〈행복의
나라〉

Abstracts

A Preliminary Study on the Song Movement in the 1970s-1980s **Kang, Young-mi**

During the post-liberation period, people unleashed their eruptive emotions of emancipation by gathering around the streets and singing songs along with each other. Those songs that people of diverse backgrounds sang in public places began to be assembled into religious and university singing books from the mid-1970s, and then released by labor, cultural and educational organizations from the mid-1980s. In this study, a preliminary investigation is carried out to outl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formation of the song movement by examining the features of the songs and the song books printed up to 1983 before the movement spread in full scale.

In the formative period of the song movement, there were few original Korean songs aspiring community life with the lack of songwriters; mostly, the songs were, mostly, foreign songs with translated lyrics, revived traditional folksongs, or those with melodies added to old and contemporary poems to create socially conscious songs.

Later, a large volume of new songs were produced by Meari, a university music circle. From the very beginning, they made songs out of the desire to create good songs rather than with the song movement in mind. The songs were, for the most part, themed on the consciousness of the times rather than love, and collective issues rather than mundane matters concerning individuals.

The yearning to sing songs different from what was available led to writing songs harboring a critical awareness of society and the life of the here and now. Self-reflective songs help not only strengthen the inner self, but also build an emotional bond among people who have taken a similar path in life and form a sense of social solidarity out of similar lived experiences. Reflections mediated by singing lead the subject to think about what kind of life to seek as an individual in the given historical context and to follow up with actions to realize a better life through the criticism of the undemocratic political system.